

메시지 3

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 — 문화를 대치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

성경: 골 1:15-18, 27, 2:9-10, 16-18, 3:4, 10-11

- I. 우리가 골로새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, 이 책에서 바울이 인간 문화라는 감추어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것이다.
- A.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‘아만인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서신서가 문화를 다루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해 준다.
 - B.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체계적인 방법이다 — 창 4:16-22.
 - 1. 문화는 모든 사람의 무의식적인 생활이다 — 엡 2:2-3, 4:17.
 - 2.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의 영향 아래 있다.
 - C. 문화가 골로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문화는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다 — 골 2:8-10, 16-18.
 - 1.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문화의 영향 아래 있다. 이러한 문화의 요소들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— 갈 4:3, 9, 골 2:8, 20.
 - 2. 교회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함께 가져왔으며, 이 문화는 그리스도와 교회생활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손상한다.
 - 3. 교회생활 안에서 유일한 요소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이 문화로 대치되어 왔다 — 골 2:8, 3:11.
 - a. 잠재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 특정한 문화적인 배경에 높은 가치를 둔다.
 - b.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문화에 의해 더 많이 대치되신다 — 골 3:11.
- II. 골로새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심을 계시한다 — 골 1:15-18, 27.
- A.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하다.
 - B. 이러한 이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교회생활에 끼치는 문화의 영향을 종결할 것이며, 우리는 문화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스도로 점유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이 될 것이다 — 골 3:11하.
- III.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한 새사람의 유일한 조성 성분이다 — 골 3:4, 10-11.
- A. 새사람인 교회의 조성 성분은 그리스도, 오직 그리스도뿐이다. 교회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이다 — 골 1:15-18, 2:9-10.
 - B. 우리의 생명과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신다 — 골 3:11.
 - C.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누린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한 새사람의 내용과 조성 성분으로 체험하고,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 되는 것이다 — 골 1:12, 3:11.
 - D. 골로새서 3장 11절에 따르면, 새사람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

1. 한 새사람 안에는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없다. 왜냐하면 새사람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— 골 3:11.
 2. 새사람인 교회 안에는 지역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국가적인 차이점들을 위한 여지가 없으며,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거나 문화나 사회적인 신분을 위한 입지도 없다.
- E.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유일한 조성 성분이기 때문에, 이 새사람의 일부인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차이가 없어야 하며 교회들 가운데에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 — 고전 4:17, 계 1:12, 20, 22:16.

IV.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.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— 골 3:11.

- A. 새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시며 또한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 — 골 1:27, 3:11.
- B. 한 면에서 새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.
- C.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지체들이 계속 존재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지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— 골 1:27.
- D.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조성으로 취할 때,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시라는 것을 깊은 속에서 느끼며,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된다 — 골 3:4.
- E. 새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.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— 골 1:15-18, 2:16-17, 3:4, 10-11.
 1.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침투되고, 그리스도로 적셔지며,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유기적으로 일해 넣어지시도록 해야 한다 — 갈 4:19, 엡 3:17상.
 2.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될 것이고, 그럴 때 실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. 그분은 새사람의 모든 부분이실 것이다 — 골 3:11하.
- F. 새사람은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,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우리를 대치하셔서, 마침내 모든 타고난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조성되도록 하신다 — 갈 4:19, 엡 3:17상, 골 1:27.
- G.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을 가질 때, 한 새사람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고, 우리는 새사람의 생활을 실현할 것이다 — 골 3:10-17, 몬 10-16.
- H.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되신다면, 그때는 오직 그분만이 새사람 안에 계실 것이고, 국적이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. 이럴 때 참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실 것이다 — 골 3:11, 빌 1:21상.

V. 새 예루살렘은 한 새사람의 최종적인 완결일 것이다 — 엡 2:15-16, 4:24, 골 3:10-11, 계 21:2, 9-10.

- A.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우주적인 한 새사람의 생활을 누릴 것이다.
- B.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화를 대치하시고,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며, 실재와 실행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한 새사람의 일부로 만드시는 것을 허락해 드림으로써, 이러한 누림을 미리 맛볼 수 있다 — 골 1:27, 2:10, 3:4, 10-11.